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

제6과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나?

[행17:11,12]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12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무엇이든지 공부하고 배울 때에는 바르게 공부하고 배우는 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우선적인 공부이다.

1. 가장 기초적인 방법

1) 성경을 읽어라.

[계1: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딤후4:13]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

[신17:19]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사34:16]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성경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으라고 권한다. 읽도록 하려고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은 자주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고 물으셨다.

[마12:3]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마12:5]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마19:5]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마22:32]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자세하게 읽어야 한다. 그렇게 읽을 때 깨달음이 온다.

[마24: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기록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자는 깨닫는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

2) 성경을 들어라.

[신31:11]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롬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계1: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미1:2] 백성들이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성경말씀을 들어야 한다. 아주 자세히 들어야 한다. 설교나 성경 연구나 성경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 들은 것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 바른 믿음으로 성경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

[행17:11,12]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12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3) 말씀을 지키라.

[계1: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눅8:15]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계22: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읽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생활에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참으로 성경을 아는 것이며, 공부한 증거이다. 읽고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배운 증거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육신이 되어야 한다. 나는 이것을 성경 화육론(聖經化肉論)이라고 부른다. 말씀 하나님인 분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사신 것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육신이 되어야 한다.

[요1:14]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2. 상고하며 짚을 찾으라.

[행17:11]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성경을 공부하는 데는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상고한다는 말은 “아나크리노(ἀνακρίνω)”인데 ‘자세히 조사하다’ 심문하다, 결정하다, 묻다, 구별하다, 판단하다, 찾다 등의 뜻이 있다. 베뢰아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날마다 자세히 성경을 살폈다. 그들은 아마도 이 말씀들이 서로 잘 맞는지 짚을 찾아서 살폈을 것이다.

[사34:16] 너희는 여호와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짚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사28:13]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말씀의 짚을 찾아 서로 해석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 엉뚱하게 짚을 만들어놓으

면 전혀 딴 소리를 하게 된다. 짝을 찾아 해석한 것이 성경 전체의 사상과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어떤 부분만 그럴듯하게 해석이 되었어도 그것이 성경 전체의 사상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1) 상고하는 정신적 자세가 중요하다.

[눅10:25,26]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의 기록이 중요한 것 못지않게 어떻게 읽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경을 읽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적하신 말씀이다.

<七十生子非吾子家産傳之壻他人勿取(칠십생자비오자가산전지서타인물취)>

[사55:8,9]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고전2: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이 생각해보지도 못한 것이다. 그것이 성경말씀이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짝을 찾고 연구해야 한다.

[고전2:10-14]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요16:12-15]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3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15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2) 생각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라

[고후10:5]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출3:5]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룻4:7,8]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되니라 8 이에 그 기업 무를 자가 보

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성경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학문, 문화, 지식, 지위, 체면 다 벗어버리고 모든 생각을 예수께 굴복시켜야 한다.

[창40:8]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3) 성경을 주신 목적을 언제나 기억하라

[요20:30,31]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5:39,40]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딤후3:15]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주신 목적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4) 하나님이 주신 성경 연구 지침을 이해하라

[창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계시의 제일 첫 말씀이 창조에 대한 말씀이다. 왜 구원과 생명 자체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시고 창조 선포를 하셨을까? 이 말씀은 구원하실 능력과 자격에 대하여 선언하시는 말씀이다.

[롬1:19,20]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창1:1이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 지침을 주신 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다.

- (1) 창조론적 시각으로 성경을 연구하라.
- (2) 구원론적 시각으로 성경을 연구하라.
- (3) 종말론적 시각으로 성경을 연구하라.

[사63:1]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사65:17]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계21:1,5]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5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능력과 자격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평화와 행복으로 살 수 있는 신천지를 재창조하실 수 있으시다. 구원도 창조이다(사45:8).

4. 짝을 어떻게 찾는가.

성경을 주신 목적에 합당한 길을 좇아 짝을 찾아야 한다. 창조론, 구원론, 종말론, 즉 생명과 존재를 영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짝을 찾아 해석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해석을 얻을 수 있다.

1) 같은 내용이나 비슷한 내용을 찾는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기억하면 좋다. 같은 말씀이 다양한 문장 안에 기록되어서 그 낱말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게 한다.

2) 관주를 유용하게 사용하라.

관주는 3과에서 공부했다. 켈 관(貫)과 구슬 주(珠)로서 성경 구절들을 꿰어놓은 구슬과 같이 해놓았다는 뜻이다.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 비교할 내용 등을 찾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몇 가지 아주 쉬운 것을 찾는 연습을 해보자.

(1) 단7:3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여기 ‘바다’라는 말 앞에 ㅇ이 붙어 있다. 관주 ㅇ에 보면 계13:1이 있다. 계13:1을 찾아보니 “내가 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 ‘한 짐승’에 ㅈ이 붙어 있고 관주 ㅈ에 보면 단 7:3이 있다.

다니엘 7장을 읽으면 짐승이 ‘나라’라고 해석한다.

[단7:17]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단7:23]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숴뜨릴 것이며.

예언에 나타난 표상들을 이와 같이 하여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찾아낸다. 어떤 곳에 관주가 없어도 다른 곳의 같은 말이나 비슷한 말에 관주가 붙어 있다. 그것을 찾을 수 있다.

(2) 마16:2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계속하여 17:8까지 읽으면 해석을 찾을 수 있다. 관주들을 보면 마가와 누가 복음에 같은 내용이 있는 장절이 나와 있고, 17:5에 ‘빛난 구름’에 ㅂ이 관주 기호로 나와 있다. 관주에 보면 벰후1:17이 나온다. 거기를 읽으면 마16:28이 변화산의 경험에 예수님 재림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주를 사용하여 여러 말씀들을 이처럼 연구하여 해석을 찾을 수 있다. 물론 관주가 모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이 있는 곳을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아주 귀한 도움을 준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진지하게 하면서 성경을 주신 목적에 부합하는 사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법을 연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여 우리 각 사람이 성경의 화육(化肉)이 되는 경험에 들어가고 세상에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요일4:16,17]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17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한 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육신이 되면 주 예수님이 어떠한 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된다.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궁극적인 것이다. 이렇게 된 사람들을 예수님은 형제라고 부르신다. 그렇게 형제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다.